

중국 희귀본소설 『明月臺』의 우화성과 인물의 특징

김 명 신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중국 희귀본소설 『明月臺』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우화적인 색채와 작중인물의 특징 및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작품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했다. 『明月臺』는 12회로 煙水散人이 지은 풍자소설이다. 煙水散인은 19세기 중반에 생존하고 있었고 창작시기는 清代 말엽 咸豐 6년(1856)인데, 당시 혼란한 시대배경과 급변하는 사회상황으로 인해 인륜도덕에 대한 가치를 각인시키고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도입부에 박쥐 서사를 삽입하여 작품의 우화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는데, 이는 三綱五倫, 因果應報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개부와 결말부에서는 裴既壽와 甘百善의 다양한 행태가 묘한 대조를 이루어서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다. 煙水散인은 창작 목적에 따라서 인물을 안배하고 그들의 성격을 주도해내었는데, 이러한 인물들은 개성적이거나 전형성을 지닌 裴既壽, 甘百善, 裴四員外, 崔員外 등으로 형성되었다. 배기수는 뒤늦게 후회하는 불효자로, 감백선은 지극정성의 효도하는 미남자로, 배사원외는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는 부친으로, 최원외는 사정이 어려워지면 남에게 집을 떠넘기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주제어 : 명월대, 희귀본, 우화성, 전형성, 풍자

1. 들어가는 말

인간은 동물과 똑같은 자연환경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물 세계에 비유하여 풍자적으로 희화화하는 경우도 많다. 소설작품 중에는 동물이 등장하여 인물의 성격이나 주제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明月臺』라는 작품을 살펴보려고 한다.

『明月臺』는 중국 희귀본 소설 중의 하나로 불효자에 대한 풍자와 권계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전작 『淸風亭』은 이 작품과 유사한 서사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짐작되지만 아쉽게도 실전되었기 때문에 연관된 측면을 탐색할 수 없게 되었다.¹⁾

작품의 필사본은 중국 天津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속표지 중앙에 ‘明月臺’라고 적혀있고 우측에 ‘咸豐 6년(1856) 6월’, 좌측아래에 ‘煙水散人²⁾ 著’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煙水散인이 함풍 연간에 지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12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작품의 서사내용, 작자, 인물, 주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明月臺』의 작자와 주제, 작품의 우화적인 측면, 등장인물의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작품의 서사구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1) 煙水散인은 전작 『淸風亭』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정자 앞에 慈親이 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효자에 대한 서사라고 알려져 있다. 江蘇省社會科學院明清小說研究中心文學研究所編,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 中國文聯出版公司, 1990. 705쪽 참조.

2) 煙水散인이 嘉興의 徐震이고 1607년경에 태어났을 거라는 楊琳의 주장은 작품의 창작연대로 보아 동일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마도 똑같은 호를 사용한 동명이인일 것이다. 楊琳 「煙水散人生平著作考述」, 『明清小說研究』, 2009年 第2期 總92期, 259쪽.

II. 『明月臺』의 작자와 주제

『明月臺』의 작자는 煙水散人 翁桂이다. 작품의 서문을 보면 翁桂는 자가 凝香이며 江蘇 洞庭 東山人으로 蕭縣에서 지냈고 清代 咸豐연간에 살았는데 자칭 布衣寒士, 草野村夫라고 한다. 말년에 아들이 불효하여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 『明月臺』 12회를 지었다고 했으니 작자는 대략 嘉慶 초반인 18세기 후반 즈음에 태어났을 것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작자 스스로 다음과 같이 평했다. “자식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통쾌하다. 아들 딸 많으면 그만큼 원망과 부담이 늘어나는 법이다. 아들이 없다고 탄식하고 처량한 말을 나눌 바에야 차라리 안개 낀 물가에서 거니는 게 나으리라.”³⁾ 여기서 작자가 자신의 호를 煙水散人이라고 지은 연유를 알 수 있다.

작자 煙水散人은 이야기의 끝부분에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데, 裴既壽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생각해보니 裴既壽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고 온갖 악행이 하늘을 찌를 정도이며 불충하고 불효하며 배은망덕하고 부자의 정이 전혀 없으며 인간이 아니다. 결국 손해를 끼치는 백호랑이, 방탕아, 악귀로 한 집안에 이르러 그 집안을 망쳤구나. 사람에게 상심이 뼈를 찌르고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진실로 천지가 일상으로 바뀌더라도 天理는 허용하기 힘들구나. 슬프다, 마음 아프다, 정말로 탄식할 만하다. 만약 양자를 들이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의미를 알게 되었으리오! 이런 느낌을 실로 맛보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권하노니 만약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본보기를 보고 경계로 삼으시오.

(想起既壽恩將仇報, 萬惡滔天, 不忠不孝, 斷恩絕義, 全無父子之情, 非人類也, 竟是一個退財白虎敗家子害人精, 到一家, 敗一家. 令人傷心刺骨, 寒膽寒心. 真乃天地翻常, 天理難容. 哀哉傷哉, 良可歎哉. 若不過繼兒, 安得知此味! 此等滋味實不中嘗. 奉勸世人, 如無兒女者, 萬萬不可如此. 看此榜樣永以爲戒. 제11회)

3) “有兒不若無兒快, 多兒多女多冤債. 與其伯道嘆淒涼, 何如散步煙水外.” 煙水散人, 『中國古代珍稀本小說續 8 明月臺』, 春風文藝出版社, 1997, 358쪽.

이처럼 煙水散人은 사람들에게 불효자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백호랑이, 방탕아, 악귀’라는 욕과 불만을 한바탕 쏟아내는 동시에,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경계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주인공 裴既壽의 부친 裴四員外는 표면적으로 양아들을 양육하고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수명 연장이라는 혜택을 받는다. 결국 배사원의 박쥐의 환생인 裴既壽를 10년 동안 고이고이 길렀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박쥐는 고래로 복을 주는 동물의 상징으로 박쥐 자체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양부모에게 ‘長壽’라는 축복을 받게 하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선업이나 음덕을 쌓으면 나중에 복을 받게 된다는 고전적인 논리 또는 교훈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을 판별하게 된다.

煙水散人은 비교적 넉넉한 裴四員外, 崔員外, 甘員外 집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주인공 裴既壽와 甘百善의 다양한 면모를 대조적으로 묘사하여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불효에 대한 풍자, 因果應報라는 면을 인지하게 된다. 또한 공간배경인 밝은 달의 누대⁴⁾는 밝게 비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등장인물들의 인생을 비교적 명징하게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Ⅲ. 작품의 우화성과 서사구조

『明月臺』는 동물우화적인 성격과 함께 전생과 현생이라는 두 가지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목적에서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작품의 우화적 성격은 박쥐 서사를 삽입해서 불효자의 비인간적 행위를 풍자하고 효자의 행실을 선양하고자 하는 의도를

4) 밝은 달의 누대는 작품의 제목이자 공간적 배경이다. 관중들이 환하게 달이 비추는 누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동작을 뚜렷하게 알아보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은 항상 통합되어 존재한다. 이러한 시공간은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드러냄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97-99쪽.

강하게 포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 『明月臺』의 우화성

우화는 교훈적 내용을 동물이나 사물 등에 빗대어 나타난 이야기인데, 대개 추상적인 관념, 즉 탐욕·기지·용기 등을 구체적 형상을 빌려 알기 쉽게 묘사한 예화라 볼 수 있다. 주로 동물 또는 식물의 생활을 묘사하여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인 것이다.

동물우화는 인물들의 성격이 매우 단순명료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추상적 교훈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우화와 소설은 같은 서사장르면서도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전자는 추상성과 초역사성을, 후자는 구체성과 역사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서로 이율배반적인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⁵⁾

작자 煙水散人は 작품의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부에 동물우화를 삽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三綱五倫과 같은 도덕적인 교훈을 단순히 늘어놓으며 설명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들 수도 없고 흥미를 느낄 수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明月臺』의 주인공은 裴既壽(風雨子)⁶⁾인데, 그의 전생은 사람이 아니라 박쥐였다.⁷⁾ 박쥐는 중국에서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모습은 사뭇 다르다. 이 날은 3월 15일로 봉황의 생신이라 여러 조류들이 모였는데 박쥐만이 참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봉황은 武彝山 迷性洞⁸⁾에 사는 박쥐를 치죄하기 위해 검은지빠귀더러 체포하라고 보냈더

5) 김준현, 「김성환 단편소설의 우화성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46집, 2006, 2, 221쪽 참조.

6) 裴既壽나 風雨子라는 성명 자체부터 그의 일생이 기구하게 될 것임을 드러낸다. 既壽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뜻이니 장수하긴 힘들다는 의미이고 風雨子는 비바람의 아들이니 결국 험난한 역경을 거쳤음을 알 수 있는 이름인 것이다.

7) 도입부의 박쥐 고사는 『笑府鳳凰壽』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서는 내용을 부연하여 만들었다. 『笑府』는 明代 馮夢龍이 편찬한 文言諧謔小說集으로 卷一 古豔部, 卷二 腐流部, 卷三 世諱部, 卷四 方術部, 卷五 廣萃部, 卷六 殊稟部, 卷七 細娛部, 卷八 刺俗部, 卷九 閨風部, 卷十 升體部, 卷十一 謬誤部, 卷十二 日用部, 卷十三 閨語部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99則이다.

8) 迷性洞은 박쥐의 미혹성을 강조한다. 헛갈리게 만드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공간

니 박쥐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쥐는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며 말했다. “천사께서는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네 개의 다리와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낮에는 엎드리고 밤에 걸어 다니므로 본래 날짐승 부류에 속하지 않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저의 모습을 본뜨고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고 제 이름을 빌어서 상서로움의 으뜸으로 삼습니다. 진실로 아름다운 명예로서 저는 필적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날짐승인지 길짐승인지 모르고 자고이래로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산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뢰어 주십시오.” 황당무계한 말들을 늘어놓으니 여러 새들이 할 말이 없어서 산으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蝙蝠施禮躬身, 說道: “天使息怒. 我蝙蝠四足而兩翼, 晝伏而夜行, 本非禽屬, 其奈我乎? 且世人圖我之形, 爲萬福之宗, 借我之名, 爲吉祥之首. 誠爲美譽, 自以爲無匹者也. 不知禽乎獸乎, 自古及今, 孰不知之? 請回山複諭.” 一派謬言悖禮說得眾鳥無言, 只得回山繳諭. 제1회)

이처럼 박쥐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지껄이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여 여러 동물들을 어이없게 만들어서 되돌아가게 만든다.

한편 봉황은 박쥐가 꾀쌌지만 날짐승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에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길짐승의 우두머리인 기린의 생신이 다가온다. 기린은 8월 15일이 다가오자 봉황에게도 초청장을 보낸다. 생일에 모든 길짐승들은 麒麟山 桃花玉洞에 도착했고 봉황도 방문했는데, 기린은 박쥐만 없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빨리 인면수, 승냥이, 호랑이, 표범 등을 보내어 박쥐를 잡아오도록 한다.

박쥐는 여전히 교활한 혀를 놀리며 변명하지만 기린에게는 통하지 않아 결국 길짐승에 편입되고 나서 방면된다. 그 후에 박쥐는 풀이 죽어서 迷性洞으로 돌아와서 진탕 마시고 놀다가 줄개들과 불량한 무리들이 선동하여 여치와 말뚝구리의 혼인을 방해한다. 사실을 알게 된 기린은 여치와 말뚝구

이와 앞으로 박쥐가 취할 행위에 대해 미리 짐작하게 만드는 소설적 장치이다. 인간과 공간은 결코 분리되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기체와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생긴 산물인 것이다. 안남일, 『기억과 공간의 소설현상학』, 나남출판, 2004, 152쪽.

리가 결혼식을 마치도록 하고 박쥐에게 장형을 가하고 길짐승 자격을 박탈한다. 박쥐는 면목이 없어서 化生池⁹⁾에 투신했는데 無根山 돌맹이 위에 떨어진다.

이처럼 裴既壽가 사람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동물 우화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후 돌맹이 위에서 한참동안 기생하다가 사람으로 환생한다.

두 사람이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울음소리가 들렸다. 오색 빛깔의 돌이 열리고 그 안에 별거벗은 아이가 누워 있었는데 어디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二人正欲前往, 又聽得啼哭之聲, 只見五彩石分開, 內臥一個赤體嬰兒, 不知從何而來. 제4회)

裴既壽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특하게 출생했기 때문에 영웅이나 위대한 인물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¹⁰⁾ 우화적인 면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흥미를 유발하는 인물이라고 하겠다.

2. 『明月臺』의 서사구조

『明月臺』는 처음 도입부에서 전생인 박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본문에 들어가면 박쥐의 환생인 風雨子에 대한 이야기와 그와 정반대인 甘百善에 대한 이야기를 대비하여 서술하고 있다. 작품의 서사구조는 전생의 박쥐에서 현생의 裴既壽(風雨子)와 甘百善의 판이한 인생으로 전개되며 도입부, 전개부, 결말부라는 간단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9) 化生池는 박쥐가 나중에 환생할 것을 암시하는 장치이다. 죽고자 했으나 재생하게 됨을 煙水散이 미리 알려주는 힌트로 볼 수 있다.
- 10) 裴既壽는 신이한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면에서 영웅의 출생과 동일하지만 그 다음 상황들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독특한 외모와 출생은 包公과도 비교된다. 포공은 이로 인해 부친에게 버림받기도 했지만 극복하고 청렴한 관리로 자리매김한다. 金明信, 「낙선재본 『충렬협의전』의 人物群像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2집, 2005, 9, 3-5쪽.

1. 봉황의 탄신일에 박쥐가 참석하지 않아서 잡으러 오지만 궤변을 늘어놓는다.
2. 기린의 탄신일에도 박쥐가 참석하지 않았다가 혼나고 나서 길짐승에 속하게 된다.
3. 박쥐는 여치와 말뚝구리의 혼인을 방해했다가 벌을 받고 강에 투신하지만 돌 위에 떨어진다.
4. 박쥐는 인간으로 환생했는데 崔員外가 발견하여 風雨子라 이름 짓고 6년간 기른다.
5. 崔員外는 형편이 어려워져서 풍우자를 입양 보내고 裴四員外는 裴既壽라고 이름 짓는다.
6. 裴既壽는 공부에 힘쓰지 않고 싸움만 하고 다니며 양부모의 속을 썩인다.
7. 甘員外의 아들 甘百善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효성스런 인물로 고모댁에 가다가 도적을 만나고 용궁에 다녀오게 된다.
8. 裴既壽는 裴四員外를 무고하게 만들고 도박, 게집질 등에 돈을 탕진한다.
9. 돈이 떨어지자 裴既壽는 후회하고 개심하여 귀가하고자 하나 五色石이 삼켜버린다.
10. 甘百善은 와병 중인 모친에게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드시게 하고 探花로 급제하며 용왕의 딸과 혼인하여 백년해로하며 5남2녀의 자식들도 부귀영화를 누린다.

전체 서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입부는 박쥐와 관련된 동물 서사를 서술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우화소설적인 요소를 삽입하여 앞으로 전개될 서사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주제를 나타낸 이야기임을 암시하고 있다.

전개부에는 裴既壽와 甘百善의 인생을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우선, 출생 면에서 보면 배기수와 감백선은 모두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다. 2남3녀를 낳은 다복한 崔員外가 발견한 배기수는 다섯 가지 빛나는 색깔을 가진 돌¹¹⁾ 위에서 출생했고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

11) 五色石은 독특한 빛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석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상서로

다. 한편 甘員外는 거의 40세가 다 된 늦은 나이에 간신히 甘百善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성장과정은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부유했던 崔員外의 집이 가뭄으로 인해 망한데다가 친아들 두 명이 죽게 되고 裴既壽를 키우기도 힘들게 되면서 배기수의 불우한 인생이 시작된다. 최원외가 裴四員外에게 배기수를 입양시키는 문제가 지지부진하다가 6년의 세월이 흐른다. 배기수는 부모님으로 알고 있던 최원외 부부를 떠나서 배사원외에게 입적되지만 그들에게 정을 붙이지 못한다. 밖으로 걸돌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 도박, 계집질을 일삼으며 세월을 보낸다. 배사원외는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장사 밀천을 대주며 南京으로 떠나보내지만 배기수는 배사원외에게 도둑놈을 도왔다는 누명을 씌우게 하고 돈을 탕진해버린다.¹²⁾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甘百善은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일생을 보여준다. 裴既壽가 글공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력을 쓰고 다닌 것과는 달리 감백선은 학문에 힘쓰면서 모든 일을 반듯하게 처리했었는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다. 아버지의 명으로 湖廣의 고모 甘氏十三姐를 찾으러 갔다가 黑松林에서 도적을 만난다. 그 과정에서 하인 宋明이 죽고 감백선도 죽음을 당하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막대기를 짚은 사람이 나타나서 용궁으로 인도한다.

결말부에는 裴既壽와 甘百善의 행적에 대한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배기수는 뒤늦게 후회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오지만 無根山の 五色石에게 삼켜져서 세상에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된다. 반면에 감백선은 모친이 사경을 헤매고 계실 적에 넓적다리 살을 베

움을 상징한다. 裴既壽의 출생 단계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오색석은 清代 소설의 제목으로 활용되었는데, 『오색석』, 『筆練閣編述五色石』이라고 한다. 작자는 ‘筆練閣主人’인데 본명은 徐述夔일 거라고 짐작된다. 이 책은 8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과응보와 재자가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女媧補天’ 이야기에서 유래된 오색석은 『紅樓夢』의 가보옥이 가진 通靈寶玉과도 미묘한 관련성이 있다.

- 12) 裴既壽의 이러한 행태는 전생에 대한 상처표출로도 볼 수 있다. 박쥐였던 전생에서 벌을 받고 친구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었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만과 억눌림 등을 세상에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안남일, 『기억과 공간의 소설현상학』, 나남출판, 2004, 250쪽 참조.

어서 드시게 하는 효성을 발휘하고 探花로 급제하며 용왕의 딸과 혼인하여 5남2녀의 자식을 낳고 백년해로한다는 것이다.

결국 전생에 박쥐였던 裴旣壽는 사람으로 환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효를 저지르고 인생을 낭비하다가 죽는다. 전생에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일종의 축복이자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악업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작자가 불효자에 대한 풍자로 전생에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논조로 개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반면에 甘百善은 모든 면에서 훌륭한 행실을 나타내어 모범적이고 출중한 인물의 전형으로 묘사되고 있다. 불효자와 효자를 강렬하게 대비하여 묘사함으로써 인생의 말년도 행복과 불행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확연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작품의 서사구조를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표 1〉 『明月臺』의 서사구조

IV. 인물의 특징

『明月臺』의 인물은 작자의 안배에 따라서 개성적이고 전형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자 煙水散人은 각각 악역 주인공¹³⁾ 裴旣壽, 甘百善, 裴四員外, 崔員外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독자

13) 악역 주인공은 현대소설에서 만들어낸 캐릭터로 고전소설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 고전의 주인공은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는 게 정석이다. 그럼에도 작자가 裴旣壽에게 악역을 담당하게 한 이유는 착하고 효성스러운 甘

들에게 교훈적인 면을 확연히 전달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은 모두 풍자성과 교훈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1. 후회하는 불효자-裴既壽

裴既壽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났다고 볼 수 있다. 박쥐라는 전생에서 無根山의 돌에 붙어 있다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崔員외의 부인 武氏는 배기수를 처음 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¹⁴⁾

부인이 애를 받아서 보니 미목이 수려하고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붉었다. 자세히 보고 나서 말했다. “눈썹에 높이 차이가 있고 눈은 짙하니 심상이 바르지 않을 거예요. 코에 반점 하나가 있으니 마음이 좀 어두울 겁니다. 반점은 치료할 수 있지만 어두움은 치료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날마다 점점 커지고 16년이 되면 모두 검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좋지 않음이 바로 여기에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女人接過小兒一看, 卻是眉清目秀, 面白唇紅. 仔細一觀, 說道: “眉有高低, 眼有雌雄, 心懷不正. 鼻有一痣, 心有點黑, 其痣可治, 其黑難療, 且日漸而大, 十六年來, 盡行全黑. 日後不良, 立見於此. 제5회)

武氏는 처음부터 裴既壽에 대해 호감을 보이지 않고 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고 기괴한 일이라면서 상스럽지 못하다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崔員외는 부인의 말에 전혀 동조하지 않고 이 애가 장차 커다란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裴既壽는 양부모 裴四員外 부부에게 공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안의 돈을 탕진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배사원의 부부는 배기수를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지만 성정이 괴상하여 절대로 아빠,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처음에 廣東 廣招財에게 장사하러 보냈지만 도박과 계집질로 탕진

百善과 대비하여 ‘불효에 대한 비판과 강개’를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다.

14) 武氏는 관상학적인 측면에서 裴既壽의 미래와 성격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수명까지도 예견한 말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운명론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

하고 다시 江西로 보냈지만 여전히 흥청망청 노름과 계집질에 빠져든다. 그러다가 세 번째 장사길 南京에서 돈을 다 허비하고 나서 마음을 바꿔서 부모님께 불효했던 과거를 뉘우치고 효자가 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에 돌아가면 뜻을 세우고 사람이 되어 은혜에 보답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인생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아야지. 선한 생각으로 전환했다. 나쁜 마음은 갑자기 붉어지더니 그의 잡념을 불태웠고 나쁜 마음을 태워 없애버렸다.

(此番回去, 立志成人, 知恩報恩, 孝敬父母, 不枉人生在世. 轉了一個善念. 這黑良心忽然一紅, 乃自己的三昧真火燒著了, 把個黑良心燒的沒有了. 제 11회)

裊既壽는 하인 鮑信의 권고로 이제까지의 나쁜 행적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될 각오를 하고 귀가하려고 한다. 그들은 돈도 떨어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돌아가는 길에 無根山에 올라가서 갈증을 해결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다.¹⁵⁾

주인과 하인 두 사람은 천천히 산 위에 도착했다. 샘물이 있어서 물을 떠먹고 갈증을 해소했다. 갑자기 먹구름이 해를 가리더니 비바람이 번갈아 쳐서 두 사람은 돌 아래로 피했다. 샘물 옆에 오색 빛이 나는 돌이 하나 있었는데, 조개가 입을 벌린 것 같은 모양이었다가 裊既壽를 단번에 빨아 들였다. 그 돌은 하나로 합쳐져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었고 아무런 작은 틈도 없었다. 鮑信이 멍 하니 한참 동안 있었더니 비바람도 바로 그쳤다.

(主仆二人迤邐前行, 來到山上. 有一清泉, 掬水解渴. 忽然烏雲蔽日, 風雨交加, 二人躲避石岩之下. 只見泉邊有一塊五彩光華石, 如蛤蚌之開張, 直把裊既壽一吸而入. 其石合而爲一, 渾然一塊, 毫無纖毫破綻. 把個鮑信呆了半晌, 風雨也就止了. 제 11회)

15)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裊既壽가 개과천선하려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처럼 고전소설의 악인은 대개 불행한 결말로 끝나지만 가끔 특이한 경우도 있다. 鍾雄은 회개한 악인으로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았고 후반부에서야 包拯을 비롯한 선인 그룹에 합류한다. 金明信, 「한글 필사본 『忠烈俠義傳』의 惡人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7집, 2008, 3. 241-243쪽.

裴旣壽의 가장 큰 잘못은 張三에게 돈을 주어 부친이 범인을 은닉한 것처럼 꾸며서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이다. 그는 불효를 후회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악행이 하늘까지 닿았으므로 옥황상제와 大白金星이 裴四員외의 고통을 감안하여 벌을 내린 것이었다.¹⁶⁾

2. 지극정성의 효자-甘百善

甘百善은 吉安府 安樂村에 사는 甘員外의 아들로 학식이 풍부하고 외모가 출중하며 효성이 지극한 인물이다. 성명조차도 백가지 선행을 한다는 의미이니 선인의 대표로 추정된다고 하겠다.

甘員外는 나이가 사십 가까이 되어서야 아들 하나를 낳았고 형제자매가 없었다. 아명은 萬卷書이고 학명은 百善이며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널리 선행을 행하는 게 아버지보다 뛰어났다. 그를 보면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집안내력이 있어서 과연 자질이 준수하고 비범했다. 재주는 宋玉¹⁷⁾에 비견되고 용모는 潘安¹⁸⁾과 같았으며 학식이 풍부하여 문장을 칠보 안에 지었다. 나이가 스무 살에 가까웠는데 아직 아내가 없었다.

(這甘員外年將四旬, 只生一子, 並無兒妹, 乳名萬卷書, 學名百善, 至性最孝, 廣行善事, 勝於父祖. 觀其舉止端莊, 大有根基來歷, 果然天姿俊秀, 一表非凡. 才比宋玉, 貌若潘安, 胸富五車, 文成七步. 年將弱冠, 尚未受室. 제5회)

16) 裴旣壽는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가혹한 면도 있다. 6세가 되어서야 입양됨으로써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빼돌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반항 심리는 ‘저항적 자의식’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 俠義人物의 경우 협행을 통해서 반항과 풍자의식을 발현하는 경우가 많다. 김명구, 『인물과 서사』, 학고방, 2018, 344쪽 참조.

17) 宋玉(B.C. 298-B.C. 222)은 戰國時代 宋나라 공자인데, 중국 사대 미남자 중의 하나로 다른 이름은 子淵이다. 老莊사상을 숭상하고 屈原 이후에 태어났고 辭賦를 잘 지었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史記·屈原賈生列傳』에 기록되어 있다.

18) 潘安(247-300)은 潘岳을 가리키는데, 字는 安仁이고 河南 中牟 사람으로 西晉의 유명한 文學家이자 政治家이다. 중국 고대 제일의 미남자로 일컬어졌기 때문에 후대 미남자를 묘사할 때는 항상 언급되곤 한다.

甘百善의 모친이 중병에 들어서 자리에 누워 있는데 의원이 꼭 필요한 약재 중에 넓적다리 살 한 덩어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때 그의 지극한 효심은 여기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甘百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선생이 말한 것은 심장이나 살을 베는 것이 아니겠는가? 玲瓏心은 세상에 드물다.’ 다시 생각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심장을 베어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한다. 지금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셨는데 자식으로서 비록 심장을 벨 수는 없어도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구하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이치적으로도 당연하다.’ 생각을 이미 정했다. 밤에 향불을 피우고 기도하며 하늘에 빌었다. 절을 하고 나서 넓적다리 살 한 덩어리를 베었고 선혈이 낭자했지만 약병 속에 넣었다.

(百善心中想道: 先生說此之物, 豈非割心割肉? 這玲瓏心世間罕有. 轉而一想道: 父母愛子之心, 謂之疼如割心. 而今我母親病在沉疴, 爲兒的雖不能割心, 亦可割股救親. 報答養育之恩. 理亦當然. 主意已定. 臨晚焚香拜禱, 祝告上蒼. 拜罷之後, 然後割下股肉一塊. 鮮血淋漓, 放在藥壺中. 제10회)

甘百善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넓적다리 살을 베어 모친의 약에 혼합하여 달이게 만든다. 자신의 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으로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것도 전혀 개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결국 甘百善의 지극한 효성은 궁성에까지 알려져서 황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본받게 하고자 ‘孝格天庭’이라는 편액을 하사한다.

그 날은 갑자기 성지가 내려오더니 편액을 하사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시겠지만 이때 왜 그에게 편액을 하사하신 걸까요? 궁전에서 상주했을 때 그 중에서 넓적다리 살을 베어 모친을 구한 사연을 상주하니 황제께서 그의 효심이 정성스럽다고 하시고 정말 경탄할만하게도 인공음보가 있어 용왕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探花로 낙점되었으며 성지를 받들어 혼인을 완결했으니 황제는 상을 주어 격려하고 가문을 빛내게 하고 황은을 받게 된 것이었다.

(那日忽有聖旨前來, 欽賜一匾. 看官有所不知, 此時爲何賜他一匾? 因在金殿細奏時, 內中奏出割股救親의情由, 聖上念他孝心真誠, 可敬可欽, 大有

因果, 能與龍王聯姻, 得點探花, 奉旨完姻, 寡人優獎鼓勵, 令其一門榮耀, 大受皇恩. 제12회)

甘百善은 잘생긴 용모에 착한 마음씨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探花로 급제하고 용왕의 딸 百花宮主와 혼인하며 백세까지 장수한다. 아울러 5남2녀의 자식들도 화합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고관이 된다.

사실 甘百善이 百花宮主와 연분을 맺게 된 것은 부친 甘雨가 예전에 금빛 빨간 꼬리 잉어를 샀다가 鴛鴦河¹⁹⁾에 놓아준 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선업을 쌓은 보답으로 용왕이 딸과 혼사를 진행시킨 것이니 그야말로 인과응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3. 끝까지 믿어주는 부친-裴四員外

江西 吉安府에 살았던 裴四員外는 이름이 祿榮이고 항렬은 넷째로 裴四員外라고 칭해지며, 甘氏十三姐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웃 崔員外의 타성을 가진 형제로 낙천적이고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 安貧樂道를 실천하는 일반 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裴四員外는 집안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인정이 두터웠고 나이가 비록 40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 부부는 세정을 간파하고 자식을 걱정하지 않고 종일 염불하고 작은 음덕을 쌓았으며 배고픈 고통이나 부귀에 대한 욕심이 없어 안분지족하며 살 뿐이었다. 부부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천명을 기다리며 전혀 괴로움이 없었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裴員外, 家計不豐, 爲人古道, 年雖四旬, 子息全無. 他夫婦二人看破世情, 不以兒女爲念, 終朝念佛誦經, 做些小陰功善事, 亦無饑寒之苦, 亦無求富貴之心, 安分守己. 夫婦二人相依爲命, 以待天年, 無掛無慮, 豈不樂哉! 제5회)

19) 鴛鴦河는 남녀의 연분과 관련된 일종의 장치이다. 甘百善이 부친의 공덕으로 원앙하를 통해서 반려자를 만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煙水散人은 다양한 공간에서 일종의 복선을 깔아놓아서 독자들에게 내용을 미리 짐작하게끔 만들고 있다.

이처럼 裴四員外는 이미 아이가 없는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崔員外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입양하라는 권유를 하기 시작한다.

湖廣 白虎村²⁰⁾으로 이사 간 裴四員外는 風雨子를 입양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이웃사람들까지 망해버린 崔員外를 도울 겸 아이를 입양해달라고 하자 후덕한 성격을 가진 그는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배사원외는 풍우자에게 裴既壽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극진히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기수는 양부모와 친하게 지내거나 공손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裴四員外는 아들이 여러 번 사기를 쳐서 집안이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도 믿어주면서 마지막까지 장사 밑천을 대준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 鮑信이 돌아와서 裴既壽가 죽었다는 비보를 전한다.

金二姐는 방 안에서 鮑信이 돌아와서 남편이 뜻밖에 죽었고 기이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황급히 상복을 입고 나와서 시부모님께 엎드리며 울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왕 남편이 가정을 저버렸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지만 저는 다소 예의를 알기 때문에 응당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불효의 죄는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는 봉양할 사람이 없고 여생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 제가 기꺼이 두 분을 백년 동안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니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현명하구나, 효부야, 이것은 모두 우리 애가 너의 일생을 망친 것인데 우리가 너의 청춘을 그르칠까 두렵구나. 진퇴양난이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金二姐在房中聞得鮑信回來，傳言她丈夫不測而死，死的奇怪，急忙穿孝出得房來，匍伏於公姑之前，哭道：“公公婆婆在上，既然丈夫背棄庭幃，橫生不測，兒媳頗知禮義，理當輕生，完名全節。不孝之罪，盡在兒媳。念公姑年老，無人侍奉，少留餘生，甘心立志，終養二老百年。未知公公婆婆意下如何？”夫婦二人含淚道：“賢哉孝媳，此皆我冤孽兒害了你的終身，我二者猶恐誤了你的青春，左右兩難，如何是好？” 제11회)

20) 裴四員外가 吉安府에서 白虎村으로 이사 가고 백호 꿈을 꾸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그의 인생이 험난해질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편안하고 길한 지역에서 백호가 출몰하는 마을로 이동했다는 자체도 고생살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裴既壽의 죽음으로 아내 金二姐와 裴四員外 부부는 청천벽력을 느끼지만 金二姐는 바로 상복을 입고 절개를 지키며 시부모님을 평생 모시겠다는 맹세를 하고 있다.²¹⁾ 裴四員外는 아들 복은 없었지만 며느리 복은 있었는지 노년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상제는 裴既壽의 악행에 분노하지만 裴四員外는 88세, 부인 甘氏는 84세로 수명을 늘리도록 명하니 결국 배사원의 배기수를 키워서 쌓은 공덕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짐을 떠넘기는 형제-崔員外

崔員外는 이름이吉이고 자는 金龍이며 유랑하기를 좋아하는 인물로, 처음에 無根山에서 裴既壽를 데리고 와서 잘 키우려고 했었다. 그의 배기수에 대한 첫인상은 다음과 같다.

자세히 아이를 쳐다보니 이마는 넓고 턱은 둥글며 미목이 수려하고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붉었다. 기쁨을 이길 수 없었고 보석처럼 사랑했다. 風雨子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天盛이라는 자를 주었으며 향렬은 셋째였다.
(細看嬰兒, 天庭飽滿, 地間方圓, 眉清目秀, 面白唇紅. 喜之不勝, 愛如珍寶. 取名風雨子, 取字天盛, 排行第三. 제4회)

그러나 3년 동안 흥년이 들고 자신의 아들 둘이 연달아 죽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자 風雨子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아내의 생각에 동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직접 裴四員外를 찾아가서 풍우자를 입양하라고 권유하지만 거절당한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원수를 어떻게 처리하나? 다시 이웃주민들 에게 부탁해서 중간에 잘 말해서 어린 애를 연명하게 한다면 또한 매우 커다란 음덕인 거지. 선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하겠어?” 이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21) 앞서 金二姐가 한 다짐과 맹세도 작자가 내세우고자 하는 인륜도덕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心中想道: 這個冤業兒作何安置? 再托左鄰右舍從中善說, 使小子苟延性命, 亦是一個大大陰功. 好善之人, 何不爲之? 這且不言. 제5회)

崔員外는 裴四員外에게 입양을 거절당하고 나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처음 생각과는 달리 어느 순간 裴既壽를 처리해야 할 애물덩어리이자 짐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배사원외가 배기수를 입양하도록 부탁하러 다니게 된다. 이후에 마치 골칫덩어리를 떠넘기듯이 배사원외에게 배기수를 맡기고 나서 나머지 인생을 훌가분하게 설계하러 떠난다.

V. 나오는 말

『明月臺』는 12회로 구성되었고 煙水散人이 지은 풍자소설에 해당한다. 작자 煙水散人은 清代 咸豐연간에 생존한 인물로 말년에 아들이 불효하여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작품을 창작했다고 한다.

창작시기는 清代 말엽 咸豐 6년(1856)인데, 煙水散人은 당시 혼란한 시대 배경과 급변하는 사회상황으로 인해 인륜도덕에 대한 가치를 각인시키고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도입부에 박쥐 서사를 삽입하여 작품의 우화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는데, 이는 三綱五倫, 因果應報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우화는 노골적으로 보편도덕의 자각이라는 전통적 교훈성에 의지하거나 최소한 그것을 동시에 제고시키려는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개부와 결말부에서는 裴既壽와 甘百善의 다양한 행태가 묘한 대조를 이루어서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다.

煙水散人은 창작 목적에 따라서 인물을 안배하고 그들의 성격을 주조해 내었는데, 이러한 인물들은 개성적이거나 전형성을 지닌 裴既壽, 甘百善, 裴四員外, 崔員外 등으로 만들어졌다. 배기수는 뒤늦게 후회하는 불효자로, 감백선은 지극정성의 효도하는 미남자로, 배사원외는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는 부친으로, 최원외는 사정이 어려워지면 남에게 짐을 떠넘기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煙水散人은 褻既壽와 甘百善의 인생을 대조적인 시각에서 묘사하여 전통윤리 도덕인 효행을 강조하고자 했고 우화의 삽입과 시의적절한 인물 배치를 통해서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작품은 상당히 성공적인 편에 속한다. 다만 작자가 우화와 본 이야기의 인물들을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하여 서술했다면 더 흥미로운 서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 참고문헌

- 煙水散人, 『中國古代珍稀本小說續 8 明月臺』, 春風文藝出版社, 1997.
- 江蘇省社會科學院明清小說研究中心文學研究所編,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 中國文聯出版公司, 1990.
- 楊琳, 「烟水散人生平著作考述」, 『明清小說研究』, 2009年 第2期 總92期.
- 金明信, 「稀貴本 中國 通俗小說에 대한 소개-한국 소장본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제40집, 2013, 8.
- 金明信, 「낙선재본 『충렬협의전』의 人物群像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2집, 2005, 9.
- 金明信, 「한글 필사본 『忠烈俠義傳』의 惡人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7집, 2008, 3.
- 김준현, 「김성한 단편소설의 우화성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46집, 2006, 2.
- 김명구, 『인물과 서사』, 학고방, 2018.
- 우한용, 『소설장르의 역동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 안남일, 『기억과 공간의 소설현상학』, 나남출판, 2004.

❖ ABSTRACT

The study on the Chinese rare novel
Mingyuetai(明月臺)'s fable-trait and Character

Kim, Myung-si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udy of Chinese rare novel *Mingyuetai*(明月臺), whe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value of the work by analyzing the alleg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characters and the narrative structure. *Mingyuetai* is a satirical novel made by Yanshuisanren(煙水散人) in 12 episodes. Yanshuisanren was alive in the mid-19th century, the time of creation was in the end of the Qing Dynasty (1856), whereby it seems to have created the work in the intention to imprint and enhance the value of the human race and its moral virtues, due to the confused era background and the rapidly changing social situation. The artist inserts the bat narrative in the beginning of the work to highlight the allegorical aspect of the work, and it has the purpose of emphasizing the theme of the Three principles and five aspects(三綱五倫), and the Causality Report(因果應報). In the development section and the ending section of the work, the various behaviors of Pei Jishou(裴既壽) and Gan Baishan(甘百善) give an intense sense of contrast in the story. In this example, Yanshuisanren arranged the character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ir creation and cast their character for those purposes, accordingly since these figures are made up of personality or typical characters of Pei Jishou, Gan Baishan, Pei Siyuanwai(裴四員外), Cui Yuanwai(崔員外) and so on. Pei Jishou is described as a late regretful unfilial person, Gan Baishan is described as a handsome man who is also very passionate, Pei Siyuanwai is described as a father who believes the truth regarding his child to the end, and Cui Yuanwai is described as a person who has a burden to lean on

others when events become challenging.

Key Words : *Mingyuetai*, rare novel, fable-trait, typical, satire

■ 논문접수일 : 2019. 02. 10

■ 심사완료일 : 2019. 03. 01

■ 게재확정일 : 2019. 03. 11